

## HEADLINE NEWS

### 취업체험의 기회 제공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개최로 고용창출 도모 (오사카)

일본 오사카市는 새로운 취업지원책으로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시청 등에서 취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 창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의 입문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등도 최근 개최하고 있다.

市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와 노하우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 시민 모두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창업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하고 있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8/month/index.htm#month1](http://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8/month/index.htm#month1))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경찰관 및 교사의 거주로 인해 범죄감소효과 발생 (미국)
- ② 「상업용지 디자인대회」 개최를 통해 경쟁력있는 도시 만들기 추진 (몬트리올)
- ③ 지역내 공간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 (엘라배마주: 헌츠빌)

### 도시환경

- ④ 고속도로와 인접한 학교 학생들의 건강위해문제 발생 (캘리포니아주)

### 도시교통

- ⑤ 新개발지역에 대규모 자전거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 (콜로라도주: 덴버市)
- ⑥ 지하철역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뉴욕)
- ⑦ 지하철 역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실시 (워싱턴 D.C.)
- ⑧ 고속도로 교통표지판에 시인성 높은 새로운 글씨체 사용 (텍사스주: 샌안토니오市)
- ⑨ 청소차량을 이용해 불법주차 단속 추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市)
- ⑩ 청년층 예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운전 홍보 웹사이트 개설 (아이다호주: 보이시市)

### 사회복지문화

- ⑪ 여성전문 외래진료 확대 추진 등 의료체제 정비 (오사카)

### 행재정

- ⑫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都의 기본의견」 발표 (동경)
- ⑬ 디자이너와 중소기업을 연계하기 위한 디자인시장 창출 (동경)

### ① 경찰관 및 교사의 거주로 인해 범죱감소효과 발생 (미국)

미국 주택도시개발청(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은 「옆집에 사는 경찰관, 옆집에 사는 교사(Officer Next Door and Teacher Next Door)」 프로그램의 평가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단지에 경찰관이나 교사들이 거주할 경우 근린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죱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관과 학교 교사들이 저소득층·중산층 커뮤니티에 거주할 경우 근린에서 일어나는 범죱의 빈도와 종류를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990년대 후반 주택도시개발청의 정책개발연구부서(Office of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보고서는 주택도시개발청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이용 가능하다.

([www.huduser.org/publications/COMMDEVL/OND\\_TNDProgEval.html](http://www.huduser.org/publications/COMMDEVL/OND_TNDProgEval.html))

### ② 「상업용지 디자인대회」 개최를 통해 경쟁력있는 도시 만들기 추진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市에서 개최되는 「상업용지 디자인대회(Commerce Design Montreal competition)」는 도시내의 상업용지 디자인이 비즈니스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몬트리올市는 이 대회가 기업 경영인, 도시 및 건축설계 전문가, 관광분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교환을 통해 市를 개성있고 경쟁력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www.architectureweek.com/2004/0811/news\\_2-1.html](http://www.architectureweek.com/2004/0811/news_2-1.html))

# 도시 관리/도시 환경

## ■ 세계도시동향 ■

### ③ 지역내 공간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개설 (앨라배마주: 헨츠빌)

미국 앨라배마주 헨츠빌(Huntsville)시는 지역내 공간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이 웹사이트는 市도시계획국 GIS부에서 개발한 것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소를 웹사이트 창에 입력하면 그 지역의 공간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지도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용도지역지구, 도시경계, 홍수범람지역, 선거구역 등 총 24종이다.

기존에는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민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여 자료 요청을 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했었다. 市는 이 웹사이트의 개설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는 수고 및 수수료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관련 공무원의 업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ww.govtech.net/news/news.php?id=91150](http://www.govtech.net/news/news.php?id=91150))

### ④ 고속도로와 인접한 학교 학생들의 건강위해문제 발생 (캘리포니아주)

2003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상원법안 352(California Senate Bill 352)」에 따르면, 자동차와 트럭의 통행은 약 40여종의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며, 도로를 기준으로 약 200m 내의 구역에서 그 오염 정도가 가장 높다고 한다. 실제로, 주요 간선도로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들이 도로에 인접한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건강은, 인접한 도로와 학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도로의 교통량이 많을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호흡기질환을 들 수 있으며, 암 발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ww.planetizen.com/news/item.php?id=14144](http://www.planetizen.com/news/item.php?id=14144))

### 5] 新개발지역에 대규모 자전거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 (콜로라도州: 덴버市)

미국 콜로라도州 덴버市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지역에 대규모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최근 개설했다. 이 시설물은 약 10,000㎡ 규모에 달하는 부지에 실내 자전거 주차시설 및 카풀 관련 안내센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계획 초기부터 개발업자, 지역주민, 자전거 관련업계, 비영리 시민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개발한 것이다.

‘The Bike Rack’이라고 불리는 이 시설물은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탈의실, 자전거 정비 및 수리를 위한 점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연방정부 및 ‘Transportation Solutions’라는 시민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았다. 市는 이 자전거 전용 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현재 도심부 내의 재개발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www.bizjournals.com/denver/stories/2004/06/21/story7.html](http://www.bizjournals.com/denver/stories/2004/06/21/story7.html))

### 6] 지하철역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뉴욕)

미국 뉴욕市 ‘대중교통 승객위원회(The New York City Transit Riders Council)’는 최근 실시한 지하철 역사(驛舍)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승객의 입장에서 지하철역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市에 소재한 약 50여개의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1994년에 수행한 유사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그 변화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설문에 사용된 평가항목은 역사 내의 쓰레기 처리, 전화, 전선, 벽, 천장, 계단 및 계단 손잡이 등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장 및 벽의 청결 상태가 10년 전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역사 중 50%가 바닥의 청소 상태가 좋지 않고, 42%가 쓰레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역별로 순위를 매겨 발표되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역사 정비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www.pcac.org/reports/press/press368.htm](http://www.pcac.org/reports/press/press368.htm))

### 7] 지하철 역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실시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의 지하철 운영기관 'Metro'는 지하철 역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을 2004년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하철 이용의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들을 대하는 방법 등을 역무원들에게 가르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교육은 최근의 지하철 이용 관련 불편 신고 건수의 급증과, 이용 불편을 항의하는 승객에 대해 역무원이 무례하게 대처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www.wjla.com/news/stories/0804/167218.html](http://www.wjla.com/news/stories/0804/167218.html))

### 8] 고속도로 교통표지판에 시인성 높은 새로운 글씨체 사용 (텍사스주: 샌안토니오市)

미국 텍사스주 교통부는 노령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의 교통표지판에 쓰이는 글씨체를 바꾸는 사업을 최근 추진중이다. 주교통부가 새로 채택한 'Clearview'라는 글씨체는 글자 크기를 크게 하지 않고도 글자 내부의 간격 조정을 통해 기존 글씨체에 비해 그 시인성을 20% 가량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교통부는 새로운 글씨체로 작성된 136개의 교통표지판을 2003년 여름부터 샌안토니오(San Antonio) 지역의 고속도로에 설치해 오고 있으며, 노후화되어 교체 예정인 교통표지판을 모두 새로운 글씨체의 표지판으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 미국 사회는 노령운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위해 교통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교통부는, 연방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에 'Clearview'를 연방표준으로 지정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mysanantonio.com/news/metro/stories/MYSA072404.5B.bettersigns.e3079d.html](http://www.mysanantonio.com/news/metro/stories/MYSA072404.5B.bettersigns.e3079d.html))

### 9] 청소차량을 이용해 불법주차 단속 추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市)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市는 청소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청소차량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정해진 구역의 가로 청소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민원이 증가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단속방법은, 청소차량 운전자가 작업 도중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주차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에 경찰이 이 자료를 활용하여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市는 당분간 청소차량 1대에 시범적으로 이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유사한 조치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팜데일市에서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www.contracostatimes.com/mld/cctimes/news/local/9421283.htm](http://www.contracostatimes.com/mld/cctimes/news/local/9421283.htm))

### 10] 청년층 예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운전 홍보 웹사이트 개설 (아이다호주: 보이시市)

미국 아이다호주 교통당국은 청년층 예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홍보 웹사이트를 최근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이 웹사이트는 젊은 예비운전자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州의 교통법규를 손쉽게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용 웹사이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다양한 색상을 이용해 웹사이트를 구성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높였으며, 예비운전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교육과정 중 경품 수령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특히 안전띠 착용 권장과 음주운전 자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웹사이트의 개설을 통해 젊은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itd.idaho.gov/press/2004Press/070604a.htm](http://www.itd.idaho.gov/press/2004Press/070604a.htm))

#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 세계도시동향 ■

### ④ 여성전용 외래진료 확대 추진 등 의료체제 정비 (오사카)

일본 오사카시는 고도화·다양화하고 있는 의료요구에 대응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의료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시는 의료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13개의 시립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전용 외래진료를 시에 소재한 모든 시립병원과 시립대학 부속 병원에 확대 개설하여, 남성의사에게는 상담하기 어려운 고민을 가진 여성이 보다 손쉽게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치료가 급한 치통 등의 야간진료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오사카 치과의사회와 연계하여 야간 치과구급진단을 새로이 실시하고 있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7/month/index.htm#month1](http://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7/month/index.htm#month1))

### ④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都의 기본인견」 발표 (동경)

최근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재정(稅財政) 제도를 수정하는 「삼위 일체 개혁」(보조금 개혁, 교부세 개혁, 세원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혁은 지방분권 개혁을 목표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자립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개혁이라고 할 만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東京都는 중앙정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2004년 5월에 「지방분권 개혁에 관한 東京都의 기본의견」을 발표했다. 都는 앞으로 개혁안 검토를 진행하면서, 2004년 하반기에 이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예정이다.

([www.koho.metro.tokyo.jp/koho/2004/07/kiji/bunken.htm](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4/07/kiji/bunken.htm))

### ④ 디자이너와 중소기업을 연계하기 위한 디자인시장 창설 (동경)

일본 東京都는 디자이너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디자인시장을 창설하여 2004년 11월에 제1회 '디자인시장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디자이너로부터 모집한 시작품(試作品)을 행사장에 전시한 후, 이를 제품화하기 위해 계약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매상에 상응하는 로열티 등을 디자이너에게 지불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都内の 중소기업자들은 종업원의 평균연령이 50대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젊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제품개발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40810c3b1003y10.html](http://www.nikkei.co.jp/news/retto/20040810c3b1003y10.html))